

제3이탈리아 프라토지역의 산업전문화와 산업지구 발전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Industrial Districts Development of Prato County in the Third Italy

권 오 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정 병 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目次〉

- I. 들어가는 말
- II. 산업지구와 지역적 산업전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III. 프라토 섬유·의류산업지구의 성장과정 및 성과
- IV. 프라토 산업지구의 성장요인
- V. 맺으며

【Abstract】

Third Italy's industrial districts have been emerging as effective strategi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80's. In Comparison with the mass production system, The districts' production system characterizes a cooperative network of a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pecialized in a specific sector or process. This work will analyze the course and cause of growth of the Prato district as an exemplary industrial district. In order to elucidate the new principle of building industrial space named development of industrial districts.

This work points out three factors which has induced the growth of the Prato districts. First, the Prato districts have a production system based on vertical dis-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among enterprise. This factor make Prato's production system coupled with specialized enterprise in coping with various demand of consumer. Secondly, the district's culture i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This factor contributes to social capital by which differentiated division of labour is coordinated quickly without serious conflict. The last factor is the industri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practice since the mid-80's, focus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ts diffusion.

I. 들어가며

이탈리아가 지역경제 개발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제3이탈리아(Terza Italia)모

델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생산체계에 기인한 바 크다. 제3이탈리아의 생산체계는 흔히 대량 생산체계에 기반을 둔 포드주의적 생산라인과 달리, 많은 수의 전문 중·소기업들이 집적하여 수평적·수직적 산업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던 무렵, 대기업으로부터 분리 신설되거나 오래된 농촌형 가족기업에서 발전된 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제는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자장비, 섬유 및 의류,皮鞋, 목재가구, 도자기 등과 같이 전통적이며 장인적 성격을 갖는 고급 경공업제품 영역에서 세계적 생산기지로 성장하였다.

이곳의 산업지구들은,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이 '영역적 생산체계'(territorial production system)라 부르듯이, 전체 생산공정의 각 단계별로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광범하게 집적되어 있다. 특정 산업 부문의 전문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분화, 확산되어 온 것이다. 그런 만큼 이들 산업지구의 기업들은 자신의 특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집단 정체성과 대외적 이미지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고, 이것이 제3이탈리아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3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산업지구인 프라토 지역의 산업발전과정을 뒷받침하는 요인을 분석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프라토 섬유·의류산업지구는 지역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발전에 성공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산업지구 개발은 기존의 공업단지 개발방식과는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 특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을 창출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프라토 산업지구의 발전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공간 조성의 새로운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려 한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밀라노 프로젝트'와 같은 산업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제 3이탈리아라는 명칭은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 사회학자 바그나스코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80년대 MIT의 사회학자인 피오르와 세이블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제3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의 2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롬바르디아, 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 투스카니, 피에몬테, 마르차니세, 아브루치,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 등 8개 지역이 포함된다.

II. 산업지구와 지역적 산업전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는 영국 경제학자인 A. Marshall이 창안한 개념이다. Marshall(1890)은 19세기 말 영국 탕카셔 지방 방직공장들의 공간적 집적현상으로부터 이 개념을 얻었는데,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다수 집적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지구는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상당히 차별적인 것이다. 공업단지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공장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산업지구는 동종의 기업들이 일정 지리적 영역에 집적하여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지구는 공간적 현상이기 이전에 전문화된 기업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업단지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공업단지들 중에서 산업지구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Marshall은 이후 산업지구 현상을 분석하면서 산업지구와 함께 '집적경제'(economy of agglomeration)라는 용어도 개발해 내었다. 특정 분야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각종 도시적 활동들이 도시에 집중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집적경제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지구의 집적경제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상호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전·후방 연계를 가짐으로써 물류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문 분야의 노동력 풀을 공유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고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산업지구는 특정 산업분야 기술의 학습과 전파를 용이하게 하고 잠재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Marshall의 산업지구 논의는 상당 기간동안 학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게 된다. 포드주의 대량생산방식이 확산되면서 소기업들의 네트워크보다는 거래비용을 내부화한 대기업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중·후반 동안에 세계 경제는 대기업들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많은 경제지리학자들과 지역경제학자들도 대기업 내부조직의 공간적 분화로서 신국제분업현상에 오히려 관심을 가졌다.

산업지구 현상이 학계와 정책당국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된 것은 Sforzi, Sable, Piore 등 이탈리아계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이들은 Marshall이 주목했던 현상이 제3이탈리아 지역에서 성장한 소규모 산업지구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계 산업학자들은 제3이탈리아의 중소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공업지역들에 대해 산업지구나 마살리안 산업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들조차 Marshall이 제시한 산업지구의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able & Piore, 1984; Brusco, 1986; Sforzi, 1989; Brusco, 1990). 산업지구는 유연적 생산체제와 다품종소량생산에 조응한 산업공간 방식이며, 이 방식이 컴퓨터와 디자인 역량에 기반한 생산체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산업지구는 특정 산업분야의 기업들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전문업체들 뿐 아니라 관련된 대학, 연구소, 생산자서비스, 도시기반

시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특정 지역 내에 입지한 다양한 관련 활동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 다품종소량생산을 지원하고 집적경제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 생산 네트워크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이 거리의동에 수반되는 비용 때문이다. 거래비용 혹은 접촉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과 여타의 각종 활동들이 지리적 근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산업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흔히 거론되는 개념은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s)나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이다. 특히 신산업지구 개념은 산업지구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A. J. Scott(1988), M. Storper(1992) 등이 제안한 신산업지구(혹은 기술지구)는 엄밀히 말해서 산업지구와는 약간 강조점이 다른 개념이다. 산업지구가 일반적인 특정 분야 전문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갖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신산업지구는 특정 산업분야로 전문화되어 있는 동시에 고도의 혁신역량을 갖춘 산업지역을 의미한다. 신산업지구 개념은 캘리포니아학파의 A. J. Scott(1988)이 내놓은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과 산업지구 개념이 혼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 J. Scott은 실리콘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들이나 제3이탈리아의 소기업 집적지들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산업지구 모델과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신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혁신에 대한 중시, 산학연을 둘러싼 다양하고 광범한 연계방식, 첨단적 성격, 유통망의 공간적 범위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Scott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유연적 산업지구를 신산업공간, 혹은 신산업지구라 일컫게 된 것이다.

경영학자인 M. Porter(1991)의 경우에는 국가적 산업경쟁력 모델을 제안하면서 전문화된 산업지역에 대해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Porter의 산업클러스터 개념은 산업지구와 거의 다를 바 없지만, 산업지구가 중소기업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산업클러스터는 관련 분야의 대·중·소기업들과 더불어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광범한 집적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제3이탈리아 도시들의 산업공간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산업지구 개념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제3이탈리아의 산업지역들은 경공업 중심의 디자인 중심형 산업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프라도 사례는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의 전형적인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프라도 섬유·의류산업지구의 성장과정 및 성과

1. 성장과정

프라도의 의류 및 섬유제조업은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는 것이다. 1880년대 중반 이후 모직물의 원료로 이용되는 녁마(rug)를 활용하여 재생, 가공, 판매함으로써 울섬유 산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만큼 프라도 지방에서 의류 및 섬유제조업의 역사는 뿌리가 깊은 것이며, 이러한 역사는 침체와 번영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전에 이 지구에는 약 30개 정도의 모직물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시기만 해도 이 공장들은 대기업으로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생산시스템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원료의 구입, 디자인, 최종생산물의 판매를 내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장에서 대개 표준화된 제품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그 제품은 대부분 인도나 중국, 남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었는데, 1930년대 말 프라도의 공장에서 수출한 물량이 이탈리아 모직물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 지역의 섬유 산업은 전통적인 해외시장에 수출함으로써 Biella, Vicenza와 함께 이탈리아 울 산업을 대표하는 세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프라도 지역에서 이와 같이 섬유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계기는 무엇보다도 2차 대전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수출이 국내 군수물자조달로 대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프라도를 점령하던 독일에 의해 중소 섬유기업들은 폐쇄되고 대규모의 공장체제로 전환되었다. 물론 전쟁의 패배로 인해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된 것도 사실이지만, 점차 대규모 공장체제가 복구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여 1945년 말에 이르러 그 생산능력이 이미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재건의 시기에 일부 소기업들의 발빠른 대응도 있었지만 대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전의 수직적 통합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이후의 성장은 전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전후 의류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증가, 연합군의 원조 프로그램²⁾과 같은 요소들이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러한 유리한 국제시장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들과 더불어 다양한 단계에 전문화된 소기업들도 팽창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말, 1950년대 초반 주요 시장이었던 남아프리카, 인도, 동유럽에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시장의 급격한 수요 감소가 있었는데, 이 경기침체로부터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이 대규모 공장들이었다. 이에 기존의 대량생산체제로부터 자영생산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단일 공정으로 전문화된 기업과 장인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말하자면 불확실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요구조를 나타내는 이 시기의 새로운 시장조건에서, 대규모 생산체제는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조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방식으로 생산의 재조직화가 요구되었다. 과거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해체되고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구'는 이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었다.

<표 1> 프라도군의 산업구조 변화

2) 유럽에서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UNRRA(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을 통해 프라도 지역은 1946년 말부터 '49년초까지 저렴한 wool과 rag를 공급받고, 또 원제품의 판매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략 2년 동안 프라도의 울 산업은 고용('45년에 1000여 명에서 '48년 22,000명으로 증가)과 기계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섬유·의류 산업		제조업	
	사업체수	고용자수	사업체수	고용자수
1961	6,388	38,303	7,447	42,496
1971	8,740	42,163	9,818	46,898
1981	11,503	50,216	13,015	56,661
1991	7,623	37,756	9,003	44,072
2001	6,682	35,700	8,827	41,600
2001/1991(%)	-12.3	-5.4	-2.0	-5.6

주: 프라토군(provincia di Prato) 지역은 Cantagallo, Carmignano, Montemurlo, Poggio a Caiano, Prato, Vaiano and Vernio를 포함.

자료: ISTAT, General Census of Industry, a cura dell'Ufficio Studi della C.C.I.A.A. di Prato (2002)

이처럼 유연한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초하여 프라토 섬유산업은 다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이탈리아 모직물 수출이 32%에서 44%로 증가하던 1952년과 1962년 사이에 프라토의 섬유·의류산업 수출은 526%까지 급증하였다. 전문화된 기업의 숫자도 1953년부터 1962년 사이에 트위스팅 기업이 171개, 마감공정기업이 112개, 임파나토리가 471개, 판매업체가 380개, 직물기계업체가 87개 증가하는 등 모든 3,034개가 창업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지속되어, 섬유지구는 프라토 주변 농촌지역으로 까지 계속 팽창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과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의 고용과 생산이 감소하던 1971년대에도 프라토 지구 섬유산업의 사업체 수는 35%, 고용자 수는 23%나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들어서는 섬유기계 외에도 전통적인 카드직물(carded fabric) 생산으로부터 복잡한 하청계약을 지구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한 니트웨어와 방모사(woolen yarns) 생산에 이르기까지 산업적 다양화(제품의 다각화)가 진행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1970년에서 1981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전체 섬유산업의 수출증가율 93%를 훨씬 상회하는 137%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반전되었다. 실제 1980년대 중반 생산액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등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프라토 지역에서는 수송, 은행, 상업, 건설 부문에서 기업의 완만한 증가와 대비하여, 이전 시기에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 기반이었던 섬유·의류산업에서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12,46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사업체 수도 3,88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학자들은 이러한 섬유·의류산업의 경기침체 원인으로 달러화의 약세와 북아메리카 시장의 급격한 위축, 국제시장에서 수요변화, 프라토 제품이 갖는 비용우위의 침식, 프라토 기업들의 지나친 분절화 등을 지적하였다.

섬유·의류산업 분야에서 고용의 감소추세는 이후 상당히 둔화되긴 했지만,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도 약 5.4% 정도 고용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무엇보다도 임금인

상 등 비용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에 기인한 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산업고도화에 의한 제조업 고용비용의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프라도 지방의 기업들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외곽으로 확산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프라도군은 섬유·의류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에서 점진적인 증가를 기록해 왔다. 섬유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액과 수출액의 증가는 소폭에 그쳤지만 의류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장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섬유기계 산업에서는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내수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최근 프라도 지역의 섬유·의류산업은 쇠퇴 상황이라기보다는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고 산업경쟁력이 나름대로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라도군이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인구 성장을 기록해 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2〉 프라도 섬유·의류산업의 생산액

(단위 : 백만 euro)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4,291	5,261	5,166	4,910	5,174
섬유 소계	3,273	3,433	3,363	3,210	3,388
방사	767	821	853	836	894
직물	2,178	2,222	2,111	1,963	2,057
기타 섬유	328	390	399	411	437
의류 소계	849	1,631	1,614	1,513	1,587
니트웨어	849	841	807	775	814
기성복	-	790	807	738	773
섬유 기계	169	198	190	188	199

출처 : Colombo News (2002)

〈표 3〉 프라도 섬유·의류산업의 수출액

(단위 : 백만 euro)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2,588	2,881	2,786	2,629	2,944
섬유 소계	1,890	2,141	2,046	1,911	2,159
방사	242	283	272	263	305
직물	1,473	1,636	1,521	1,400	1,565
기타 섬유	175	222	253	248	289
의류 소계	606	917	913	893	976
니트웨어	606	648	655	635	697
기성복	-	269	258	258	279
섬유 기계	91	91	85	83	88

출처 : Colombo News (2002)

프라도의 섬유·의류산업의 지속적인 집적과 성장은 지역적 산업전문화, 즉 각 기업들이 전체 생산공정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적절한 노동분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화와 유연성을 추구하고, 서유럽과 북미의 상층시장을 겨냥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시스템 상의 경쟁력은 생산공정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지속

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점과 전방의 산업부문과 후방의 보완적 산업간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지구 시스템에서 분화가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로 지구 내·외부에 자체 시장을 형성한 섬유기계 부문도 점차 확대되었는데, 이 섬유 기계업체들은 대개 프라토와 그 북쪽 그리고 에밀리아-로마냐와 그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현황과 성과

이탈리아는 21개의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프라토가 속한 곳은 토스카나 지역이다. 토스카나 지역은 프라토 외에도 람플레치오(Lamporecchio), 카스텔피오렌티노(Castelfiorentino), 엠폴리(Empoli), 산타크로체(Santa Croce), 포기본시(Poggibonsi)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토의 섬유산업 외에도 산타크로체의 가죽산업, 엠폴리의 의류, 포지본시의 목재가구, 카스텔피로렌티노의 의류 등도 제3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토스카나 지역에 속한 프라토군(provincia of Prato)은 프라토시(comune di Prato)와 칸타갈로시(comune di Cantagallo), 카르밍나노시(comune di Carmignano), 몬테무르시(comune di Montemurlo), 포지오아카이아오시(comune di Poggio a Caiano), 바이노시(comune di Vaino), 베르니오시(comune di Vernio)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프라토 지방 외에도 제 3이태리의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인데, 가령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na) 지역의 카르피, 피에몬트 지역의 비엘라(Biella), 롬바르디아의 코모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프라토의 섬유·의류생산체계는 전통적으로 모직물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화를 나타내었던 바, 이미 살펴본 대로 모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침체와 성장, 산업의 분화와 확산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프라토에는 모두 6,682개에 달하는 섬유 및 의류 회사에 35,700명이 고용되어 있다. 프라토는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특화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세계적인 섬유·의류 집적지라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내에서도 1,000인당 섬유·의류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00년 현재 프라토군이 1,000인당 섬유·의류산업 종사자가 52.4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2위인 비엘라는 17.4인으로서 1/3 수준에 불과하며, 3위인 바레세가 6.7인, 4위인 코모가 4.8인, 5위인 비첸자가 4.8인 순이다. 프라토의 섬유·의류산업 종사자는 이 지역 전 제조업 종사자 수의 약 86%에 이르며, 지역내 거주 취업자의 35%를 넘어서고 있다.

프라토 지구에서 활동하는 섬유·의류산업의 평균 기업규모는 5.3인 정도로, 이는 소기업 네트워크로 짜여진 이 지역 산업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1년 현재 피고용인의 약 85%는 5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9인 이하의 소기업이 기업의 85%를 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많은 수는 아버지, 형제, 아들, 고용된 직공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전통적인 가족경영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³⁾ 특히 의

류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자영업 형태의 기업이 8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섬유산업에서도 45%가 자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프라도의 기업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평균 기업규모가 최소에 이르렀던 1980년의 4.4인이나 1990년의 5.0인에 비하면 2001년의 5.3인은 다소 증가한 것이다. 이들 섬유·의류기업들은 약 200개의 기업에 1,6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기계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섬유기계업체들은 프라도 일대에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 섬유·의류산업의 기술혁신을 보조하거나 주도해 왔다.

<표 4> 섬유·의류산업의 기업 규모

(단위 : %)

구 분	1996		2001	
	기 업	고용인원	기 업	고용인원
소기업(1-9인)	85.4	43.6	85.0	36.6
중소기업(10-49인)	13.8	43.7	14.1	48.2
중대기업(50인 이상)	0.8	12.7	0.9	15.2
계	100.0	100.0	100.0	100.0

a cura dell'Ufficio Studi della C.C.I.A.A. di Prato (2002)

<표 5> 프라도 섬유-의류산업의 기업형태

(단위: 개, ()안은 %)

	주식회사	개인기업	자영업	기 타	계
섬유산업	1,330(27.3)	1,349(27.8)	2,180(44.8)	3(0.1)	4,862(100.0)
의류산업	179(9.8)	219(12.0)	1,424(78.2)	0(0.0)	1,822(100.0)
섬유-의류산업 계	1,509(22.6)	1,568(23.5)	3,604(53.9)	3(0.0)	6,684(100.0)
제조업 계	1,887(21.4)	2,297(26.0)	4,627(52.4)	16(0.2)	8,827(100.0)

출처 : Allegato alla relazione di bilancio consuntivo(2002)

이들 섬유·의류 회사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은 70%정도가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어 왔다. 이 중에서 EU 국가들이 57% 정도이고 비 EU 유럽국가들이 13% 정도이다. 나머지는 북미와 동아시아 시장으로 주로 수출되며 중동과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도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하고 있어 수출선의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프라도 섬유·의류산업의 수출지역(2001)

(단위 : %)

구분	섬유산업	의류 및 의세사리	기계산업	기타	계
EU 유럽국가	56.8	56.2	28.7	70.5	56.1
비EU 유럽국가	16.3	8.3	15.4	11.1	15.3
기타	26.9	35.5	55.9	18.4	2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Allegato alla relazione di bilancio consuntivo(2002)

프라토지역 섬유·의류산업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프라토군의 인구가 1991년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프라토군은 6.6%의 인구증가율을 보여왔는데, 이는 이탈리아 전체 인구증가율 -0.8%나 프라토가 속한 토스카나의 -2.0%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섬유·의류산업으로 특화(고용의 85% 이상이 섬유·의류산업 분야)된 프라토 지역의 산업성장이 1990년대에도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프라토군의 인구증가추이

	1991	2001	1991-2001 증가율(%)
칸티갈로	2,536	2,832	11.7
카르디나노	9,584	11,855	23.7
몬테무롤로	17,164	17,925	4.4
포기오 아 카이아노	7,941	8,734	10.0
프라토	165,707	175,511	5.9
바이아노	8,848	9,179	3.7
베티니오	5,464	5,649	3.4
프라토군 계	217,244	231,685	6.6
토스카나	3,531,357	3,460,835	-2.0
이탈리아	56,744,119	56,305,568	-0.8

출처 : Allegato alla relazione di bilancio consuntivo(2002)

IV. 프라토 산업지구의 성장요인

이와 같이 급속한 성장과 일시적 침체, 그리고 최근의 재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프라토 지구의 번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특히 첨단 기술 및 산업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른바 전통제조업의 영역에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앞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었던 산업지구의 특성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프라토의 산업발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수평적 분리와 전문화로 집약되는 생산시스템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프라토의 생산체계는 '이중회로의 생산구조'라고 부르듯이, 전체 생산과정을 통합하는 소수의 대기업과 전문화된 수많은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프라도 지역의 번영에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대기업이나 중간 상인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일하는 하청업자로, 재생원료의 가공으로부터 염색, 방직, 정경, 제직에 이르는 세세한 단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섬유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연관 산업도 대체적으로 지구 내부나 주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섬유업체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섬유기계업체, 컴퓨터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체계의 특성은 각 기업들이 각기 전문화한 단계에 오랜 동안의 경험과 숙련, 감각, 창의력을 가진 장인으로 확립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지역 생산체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단계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생산체계 전체는 크게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주문을 받아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기업과 생산공정의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전문 하청업자로 구분된다. 하청업자는 다시 준비(sorting of rags), 카본화 공정(carbonizzo), 정경업체(warper), 제직업체(weaver), 염색업체(dyler), 가공업체(refinisher) 등 각 공정으로 전문화되어 있는데, 특히 제직업체의 경우 다수가 장인 기업⁴⁾(artigiano firm: 10인 이하의 소규모 가족기업)-장인과 그 가족의 일원인 가내노동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최종 기업은 '임파나토리'(impanatori)라고 부르는 상인 기업가와 10인 이상의 공장을 가진 기업가들로서 공정별, 제품별로 전체 생산과정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임파나토리는 지구내에 분화되어 있는 생산체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한 핵심적 주체이다. 이들은 지구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비록 최근에 제품 구매의 공간적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었을지라도-와 외부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통해 생산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지구 내·외부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들이 수행하는 조정기능에는 제품의 디자인, 원료의 조달, 하청 계약자의 선정과 각 생산공정에 대한 통제, 원료 및 중간재의 저장, 샘플의 생산 등이 포함된다. 실제 이들은 구매자와 단기간의 사업별 계약이 체결되면 원자재를 수입하고 저장하며, 다양한 제조 단계에 필요한 소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품을 모아 고객에게 운송되는 전체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그러한 결과로 생산, 보관, 운송과 최종 제품의 배달에 이르는 광범위한 기업간 하청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여기에 지구에 집적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리적 근접성과 각 단계로 전문화한 장인 하청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숙련과 창의적 사고 등이 결합되었다. 이외에도 임파나토리는 혁신적 기업가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었던 바, 고객을 찾아 유럽 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아이디어, 유행의 흐름을 신속하게 생산시스템 안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생산체계를 통해 프라도 지구는 아주 소규모의 수요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결합하고 재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지역경제를

4) 이들 기업들은 기술적 특성상 전통적인 숙련에 의존하는 장인 기업과 70년대 이후 대기업 노동자로부터 분리·신설되고 하이테크 기술을 생산공정에 도입하여 성장하였던 새로운 유형의 장인 기업으로 대별될 수 있다. 비록 이들은 주로 각 공정상의 하청을 담당하지만 시장에서 최종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전문기업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성장시켰다.

둘째, 이 지역에 있어서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앞의 생산체계에서 강조한 대로 프라도 지구에서 제품의 생산은 여러 중소기업의 긴밀한 하청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지구내 생산시스템 전체를 집합적으로 조정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표준화의 정도가 낮은 제품의 생산에는 개별 공정이나 원료 및 중간재를 잘 조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결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수요변화가 크고 제품 및 공정혁신이 지속되는 산업지구 생산시스템은 고품질 혹은 차별적 제품을 생산하는 특정 하청업체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에는 시장수요가 크지 않지만 차별화된 하위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급속하게 형성되거나 혁신적 제품이 요구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체적인 디자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간상인과 최종 생산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을 완성하거나 새로운 생산라인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하위 계약자들의 능력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산업지구 생산시스템이 갖는 특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적 관계로 인해 프라도 지구의 생산시스템에는 사회제도로부터 창출되는 보다 광범위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사회관계로부터 비롯하는 기반이 바로 프라도 지구의 성공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인데, 무엇보다도 전체 생산과정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지적할 수 있다(Putnam, 1993). 이탈리아 내·외부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독립된 개별 기업들의 고도로 분화된 생산관계가 심각한 갈등없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산업지구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집단소속감과 신뢰, 협력과 경쟁 등이다. 여기서 프라도 지구에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배태될 수 있던 요소로 두 가지 측면, 즉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협력을 체득하게 해주는 농촌경제적 특성과 지구 전역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가족주의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실 공동경작의 경험이 풍부한 프라도 주변지역 농촌가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농업적 노동인 섬유공장에서의 노동이나 가내노동을 통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들 가운데 다수는 생산에 필요한 일정한 숙련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이나 이웃들과 호혜적이지만 불명확한 보상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지구내 동질적 산업문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또 이런 문화속에서 창출된 잠재적 노동력 기반은 프라도 지구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 1945-47년과 1948-51년 사이에 프라도지구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투스카니 출신이 60.2%, 66.0%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상호의존적·협력적 기업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게 하였다.

프라도 지구에서 공동체주의적 유대와 그에 따르는 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한 다른 요소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정치적 특성이 다르다. 실제 북동부의 경우에 교회와 연결된 농촌대부은행, 신용금고, 농업조직, 협동조합 등이 발전해 있는 반면,

중부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협동조합, 장인협회 등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치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가 발전해 왔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부적으로 동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연결된 경제활동의 정치적 조직화는 관련 주체들의 기회주의를 예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가령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숙련노동자들을 빼내가지 않는 등 경제활동의 집단적 규범을 유지함은 물론 관련된 지식을 상호 교환하고 필요한 집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동질적 정치문화 및 이데올로기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1950년대에 대기업의 위기로 인한 공장폐쇄와 대규모 실업이 있었을 때, 이러한 재구조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질적 정치문화가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그것은 대량해고 하에서도 분쟁이 급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대규모 공장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기술이나 기계가 전문화된 소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외에 공산주의적 유대는 1940년대 말 대량해고 후에 프라도의 좌파 도시의회가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경제 대표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방산업의 문제를 조사하고,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도출한 뒤,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창출은 프라도의 행정가와 지방의 각 경제 및 정치집단들이 “우리 지역의 산업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1980년대에도 이어져 1988년 ‘프라도 섬유산업 위기에 관한 경제포럼’과 같은 조직화가 있었는데, 이 포럼은 생산시스템에서 변화를 분석하고 공동의 전략을 공식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노조대표와 기업대표, 지방정부간 협력체였다.

프라도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마지막 요인은 지방의 특화 산업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다. 비록 주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경기침체와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적절한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초반 프라도 준정부가 주도하고 기술혁신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춘 공공정책은 지역 섬유·의류산업의 중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령 CONSULTA ECONOMICA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니셔티브는 위기에 대해 공공이 취할 조치들을 공식화함으로써 참여집단간 교섭 및 협약을 명문화하였다. 법률 317호(소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한 개입법)와 같은 새로운 법률 또한 구식기계의 대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 외에, 기업간 컨소시엄을 장려하고 기업간 연계를 재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표 8>은 프라도 경제의 지원에 관여한 거버넌스와 그 주요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5) 구체적으로 말해 중부의 공산주의 정치문화의 형성은 소작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가 점차 발전하던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7년 Colle Val d'Elsa에서 사회주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투스카니 지역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시의회가 성립하였다. 이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2차대전 이후 소작농의 투쟁으로 사회주의 전통이 더욱 발전하였고, 이 사회주의당은 이후 공산당으로 이어졌다. 이 경우에 공산당은 대기업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소기업의 육성전략을 택하였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성향의 친 소기업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지역의 노동자, 장인협회, 협동조합으로부터 모두 지지를 얻었다.

<표 B> 프라토 경제의 발전과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들

	조직 유형	소유 권	재원 조달	사업화시기
- 지원하부구조 산업단지 수출영화시설 수송센터 산업용수로	SPA 공공조직	일반인과 혼합 일반인과 혼합	시, 민간 시, EU 민간, 지역 시, 국가, EU	1970년대 말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 기술혁신 및 확산 Technotessile SPRINT PIN CESVIT	SPA SRL 비영리 협회 비영리 협회	혼합형 혼합형 혼합형 공공	공공과 민간 ENEA, UE, 지역, 민간 지역대학, UE 시, 지역	1970년대 중반 1983 1992 1980년대 중반
- 소기업 강화 제휴의 촉진 네트워크 서비스센터 ASATTG Gulliver & Grantessuto 섬유품질향상 센터 중소기업의 투자지원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SPA	민간 공공 민간 민간	UE, 지역, 시, 민간 UE, 지역, 시, 민간 UE, 지역, 시, 민간 UE, 지역, 민간, 국가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 1990년대 초 1991
- 인적지원 전문훈련센터 국제패션폴리테크닉 SIEL(경제 및 노동에 관한 정보시스템) FIL	공공기관 비영리조직 SPA	지역 혼합형 혼합형	지역, EU 지역, 민간 지역, 지방, EU, 시, 장인협회, 민간	1970년대 초 1985 1995 1995

각주 : SPA는 민관컨소시엄임.

자료 : IRIS, in Gabi Dei Ottati(1998)

공공의 지원과 관련하여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Brusco(1990)가 '실질서비스'(real service)라고 불렀던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공급이다. 실질서비스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나 일반적인 물리적 하부구조의 제공 그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프라토 지구 외에도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잘 알려진 것이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지역개발기관인 산업진흥공사(ERVET)에 의해 설치된 섬유정보센터(CITER)이다.⁶⁾ 이 센터는 섬유산업에서 시장개발, 마케팅, 기술영역에서 정보를 확산

6) 이외에 신발산업지원센터(CERCAL), 공장자동화지원센터(CESMA, DEMOCENTER), 세라믹산업지원센터(CENTRO CERANICO), 건설산업지원센터(QUASCO) 등이 있고, 산업전문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기술진흥기관(ASTER)과 도품질검사인정센터(CERMBT) 등이 있다.

시키는, 말하자면 부문적이고 테마지향적인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토 지구에서 실질서비스의 다른 중요한 예로는 SPRINT(Sistema Prato Innovazionni Tecnologiche)와 같은 혁신지원 프로젝트를 지적할 수 있다.

SPRINT는 이태리의 국립혁신청(ENEA)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기관인 RESEAU, 그리고 지역의 장인협회 등 민관파트너십에 의해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프라토 방모 섬유지구에서 기업간 정보통신망, 즉 텔레마틱 네트워크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제조업자, 하청업자, 브로커, 은행, 지방정부, 노조 등, 네트워크화된 300여 개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연결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프라토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 정보시스템의 자료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서 외적인 거래관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실제 SPRINT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자들은 어떤 유형의 하청업자들이 현재 어떤 가격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나와 금융이나 지방사업조건들에 대한 최신의 정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의 초기에 사업 기밀의 노출을 꺼려하는 소기업들이 있어 애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얻기 힘든 정보를 공급해 주었고, 업체간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프라토 지구가 갖고 있는 협력적 하청망을 더욱 돈독히 하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성공할 수 있다면 지방경제의 생산성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V. 맺으며

프라토의 성공은 지역기업들의 성장과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오랜 산업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지역기업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역적 산업경쟁력의 형성과정에서 산업전문화와 도시형 단지 복합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프라토의 모직산업은 제3이탈리아의 전형적인 디자인형 산업이거나 장인형 산업이 아니지만 영역적인 산업네트워크를 통해 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적 산업전문화를 통해 기업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혁신네트워크를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3이탈리아의 유사한 산업지구인 사수올로나 모데나와 같은 산업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라토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프라토의 영역적 산업전문화와 네트워크형 생산은 산업지구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는바, 전문화된 산업집적지구는 일반적인 경공업 분야에서조차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프라토는 모직산업으로 특화된 도시로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에 귀감이 되는 바가 있다. 이는 대구섬유산업의 장래가 반드시 비관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밀라노와 같이 패션어패럴 부문

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권오혁. (1995). 유연적 생산의 공간적 거점으로서 신산업지구. 「국토계획」. 국토도시계획학회.
- 박삼욱.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형성: 이론과 사례. 「지리학」. 제29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 이재원. (2000). 소기업네트워크의 경쟁력, 제3이탈리아. 권오혁 엮음. 「신산업지구」. 도서출판 한울.
- a cura dell'Ufficio Studi della C.C.I.A.A. di Prato. (2002). *Le Imprese Nel Distretto di Prato*.
- Allegato Alla Relazione di Bilancio Consuntivo. (2002). *La Situazione Economica Nella Provincia di Prato*.
- Asheim B. T. (1992). Flexible Specialization, Industrial Districts and Small Firm: A Critical Appraisal, in Ernste H., Meier V. (eds.).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ustrial Response: Extending Flexible Specialization*. London, Belhaven Press.
- Brusco S. (1986).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the Experience of Italy, in Keeble D. & Weber E. (eds.). *New Firm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Croom Helm.
- Brusco, S. (1990). A Policy for Industrial District. in Goodman. E et al(eds.).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London: Routledge.
- Colombo News. (2002). *Il Cardato Pratese*.
- Gabi Dei Ottati. (1998). Case Study I: Prato and its evolution in a European context, in Leonardi. R. et al(eds.). *Regional Development in a Modern European Economy*. Pinter Press.
- Goodman E. (1989).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Firm in Italy, in Goodman E. Bamford (eds.).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Routledge.
- Harrison B. (1992). Industrial Districts: Old Wine in New Bottles?. *Regional Studies*. vol. 26.
- Mashall A. (1890). *Industry and Trade*. Macmillan and Co.
- Pyke F., Becatiny G. Sengenberger W. (eds.). (1990). *Industrial Districts and Inter-firm Co-operation in Ital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Piore M. J., Sabel C. 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Putnam. R. A.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Scott A. J. & Storper M. (1992). Regional Development Reconsidered, in Ernste H., Meier V.(eds.).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erstrial Response: Extending Flexible Specialization*, London, Belhaven Press.

Scott A. J. (1988). *New Industrial Spaces*. London, Pion.

Sforzi F., (1989). The Geography of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in Goodman E. Bamford (eds.).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Routledge.

Storper M.(1992). The Limit to Globalization: Technology District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Geography*.

<http://www.comune.prato.it>

http://WWW.MININDUSTRIA.IT/Gabinetto/Seg_tecn/SME_WEB/eng/DISTS/DISTRICT